



4년간 시민구단 맡아 성장 이끌어…기업 구단 잇단 ‘러브콜’  
“치열하고 사람 냄새 났던 시간…한국 축구 발전 위해 뛸 것”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광주FC의 감독이었음에, 저는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광주FC의 ‘이정효 시대’가 막을 내렸다. 광주FC는 21일 “이정효 감독의 중도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시즌부터 팀을 이끌었던 이정효

감독과의 동행이 마무리됐다.

광주는 지난 2023시즌이 끝난 뒤 이뤄진 재계약을 통해 2027년까지 임기를 보장했지만 이정효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 와의 코리아컵 결승전이 ‘광주’ 이정효 감독의 마지막 무대가 됐다.

이 경기에서 이정효 감독은 전반 30분 퇴장당하면서 팀의 준우승을 관람석에서 지켜봐야 했다.

또 퇴장 조치로 인해 공식 인터뷰에 나서지 못했다. 직접 거취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던 자리가 무산되면서 이정효 감독은 K리그의 뜨거운 이름이 됐다.

또 “팀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내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 모든 말들은 불

광주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기업 구단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은 이정효 감독은 지난 12일 구단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구단은 법률을 검토 등 내부 종합 검토를 한 뒤 이날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정효 감독은 구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광주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FC에서의 4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뜨거웠으며, 무엇보다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시간이었다”며 “지도자로서 아무 것도 증명되지 않았던 나를 믿고 맡겨주신 구단의 선택은 제 축구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주 FC는 단순한 팀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법, 원칙을 지키는 법, 그리고 버텨내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었다”고 밝혔다.

또 “팀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내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 모든 말들은 불

만이 아니라 이 구단이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책임감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그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으로 답해주신 강기정 구단주 그리고 노동일 대표님과 구단 프린트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독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광주FC에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다. 성적보다 더 값진 것은 이 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냈다는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이정효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작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FC는 끝까지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잊지 않았고 최고의 대우로 함께 가길 원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려 한다. 더 넓은 무대에서 부딪히고, 증명함으로써 한국 축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FC가 가장 어려운 시즌을 앞두고 떠

나게 돼서 이별의 인사가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광주FC는 이미 스스로 설 수 있는 팀이 됐고, 더 단단히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도 분명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장을 채워주신 팬 여러분, 패배의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벼텨주신 그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이 있었기에 광주의 축구는 결과를 넘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광주에서 배운 축구와 사람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의 내 모든 선택 속에 함께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정효 감독과의 작별을 공식화한 광주는 차기 감독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는 시민구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앞서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구축된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 철학을 계승·보완해 안정적으로 팀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kwangju.co.kr

## 이정효 남긴 이정효 “굿바이! 광주FC”

### 안세영, 시즌 11승…전설이 되다



안세영이 2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BWF 배드민턴 월드투어 파이널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즈이를 꺾은 후 기뻐하고 있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여자단식 결승서 중국 왕즈이 2-1로 제압  
남녀 통합 단일시즌 최다 ‘타이’…승률 94.8%·상금 100만달러 돌파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에 도달했다.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무려 1시간 36분간의 혈투 끝에 2-1(21-13 18-21 21-10)로 물리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

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昂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

아울러 안세영은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인 94.8%를 달성했다.

올해 안세영은 단체전인 수리먼컵을 포함해 총 77경기를 치렀고 그중 단 4번의 패배만 허용하며 경이로운 수준의 무패행진을 펼쳤다.

상금 부문에서도 신기록이 탄생했다.  
대회 우승 상금 24만달러를 더한 안세영은 시즌 누적 상금 100만3175달러를 기록, 역대 배드민턴 선수 중 최초로 ‘시즌 상금 100만달러’ 돌파라는 금지탑을 쌓았다.

이날 결승전에서는 세계 랭킹 1, 2위의 격돌답게 명승부가 펼쳐졌다.

1계임 초반, 안세영은 4-8로 뒤처지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순식간에 8득점을 몰아치며 전세를 뒤집었다.

2계임에 들어서자 절치부심한 왕즈이의 반격이 시작됐다.

왕즈이는 1-1 동점 이후 초반 흐름을 주도했고, 안세영은 끈질기게 7-8로 따라붙었다.

동점을 노린 결정적인 순간, 두 선수는 74회나

셔틀콕을 주고받는 극한의 레리를 벌였다. 그러나 왕즈이의 헤어핀을 향해 몸을 던진 안세영의 수비는 아쉽게도 한 뼘이 모자랐다.

랠리를 종료되자 안세영은 텔진한 듯 코트에 쓰러지듯 누웠고, 왕즈이 또한 고개를 숙이고 한참 숨을 골랐다.

이후 안세영은 네 차례 동점 상황을 연출하며 저력을 보였지만, 결국 3점 차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2게임을 내줬다.

벼랑 끝 승부처에서, 안세영 특유의 ‘괴력’이 다시 살아났다.

안세영은 8-6으로 앞선 상황에서 7점을 연속으로 쏙여 담으며 승기를 잡았고 윈쪽 햄스트링(허벅지 근육통)이 올라온 듯 절뚝거리면서도 기어코 왕즈이를 결국 안방에서 무릎 깊게 만들었다.

승리가 확정되자 안세영은 관중을 향해 양손 손가락 한 개씩을 펴 보이며 ‘11승’ 달성 세리머니를 했고, 활짝 웃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왕즈이와의 상대 전적에서 16승 4패의 절대 우위를 점했다.

특히 올해 펼쳐진 여덟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기량 차를 입증했다.

### 광주FC ‘젊은 피’ 정지훈 ‘이민성호’ 승선

U-23 아시안컵 명단 23명 확정  
내달 2일 사우디행…조별리그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 나설 23명을 확정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소집훈련을 한 이민성 감독은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나설 23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FC의 ‘젊은 피’ 정지훈도 최종 명단에 포함돼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지난 9월 처음 이민성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정지훈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해 라오스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명단에는 국내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던 김용학·김태원(이상 포르티모넨세), 신민하(강원FC)가 포함됐다. 2023 U-20 월드컵 4강 멤버인 문현호·이찬우(이상 김천상무), 김용학(포르티모넨세), 강상윤(전북 현대), 강성진(수원 삼성)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민성호는 9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예선에서 3전 전승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고,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전지훈련에 이어 11월 중국 판다컵 우승컵도 들어 올렸다.

한편 23명의 태극전사는 22일 카타르로 출국해 사전 캠프 훈련을 치른다.

이후 1월 2일 본선 조별리그 경기가 펼쳐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이동해 실전 준비에 나선다. C조에 편성된 한국은 7일 이란, 10일 레바논, 13일 우즈베키스탄과 대결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16개 팀이 참가해 4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조 1·2위가 8강 토너먼트에서 격돌한다.

◇ AFC U-23 아시안컵 참가 명단(총 23명)  
▲ GK= 문현호(김천 상무) 홍성민(포항 스텔러스) 황재운(수원FC) ▲ DF= 강민준(포항 스텔러스) 김도현·신민하·조현태(이상 강원FC) 박성훈·배현서(이상 FC서울) 이건희·장석환(이상 수원 삼성) 이현용(수원FC) ▲ MF= 김용학(포르티모넨세) 강상윤(전북 현대) 김동진(포항 스텔러스) 김한서(용인FC) 이찬우(김천 상무) ▲ FW= 정지훈(광주FC) 김태원(포르티모넨세) 강성진(수원 삼성) 백가온(부산 아이파크) 정승배(수원FC) 정세상(대구FC)

/김여울 기자 woo@kwangju.co.kr

### KIA, 내년 3월 28일 문학서 SSG와 개막전

####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발표

KIA 타이거즈가 3월 28일 문학에서 2026 시즌을 연다.

KBO가 2026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3월 28일 막이 오르는 시즌은 팀당 144경기 채 총 702경기로 진행된다.

올 시즌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 홈경기로 개막전이 편성되면서 8위로 시즌을 마무리 한 KIA는 원정 경기로 2026시즌 대장정을 시작한다.

KIA는 문학으로 가 SSG 랜더스를 상대로 3월 28일과 29일 개막 전을 소화한다.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 트윈스는 흠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개막전을 연다. 이 외에 대전 (키움·한화), 대구 (롯데·삼성), 창원 (두산·NC) 구장에서 개막 시리즈가 진행된다.

문학에서 스타트를 끊는 KIA는 이어 잠실로 이동해 3월 31일부터 LG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홈 개막전은 4월 3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진행된다.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흠에서 한화와 맞대결을 갖는다.

2026 KBO 올스타전은 토요일인 7월 11일 열

린다.

올스타전에 맞춰 7월 10일(금)부터 7월 15일(수)까지 리그는 6일간의 휴식기를 보내 뒤 7월 16일 순위 싸움을 재개하게 된다.

후반기는 4연전으로 막을 열며, KIA는 올스타브레이크 이후 문학으로 가서 SSG와 만난다.

이동거리와 마케팅 요소 등을 고려한 격년제 (홈 73경기·원정 71경기) 원칙에 따라 내년 시즌 KIA는 LG, 삼성, NC, 기棍과 함께 흠에서 73경기를 치른다.

한편 개막 2연전과 후반기 첫 4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3연전으로 진행된다.

9월 6일(일)까지 팀당 135경기 일정을 확정한 KBO는 미편성된 경기는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와 함께 추후 편성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kwangju.co.kr